



광주에서 연습마친 T-50 에어쇼

20일 서울공항에서 개막된 '2009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이 멋진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소속 '블랙 이글'은 이번 행사를 위해 광주에서 수개월 동안 비행훈련을 해왔다.

함평·곡성·강진·영암·진도·신안 갑자기 아파도 갈 응급병원 없다

보성·구례 등 4곳은 산부인과·분만실 전혀 없어

함평·신안군 등 전남지역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아프면 찾아갈 응급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성·구례군 등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없어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길 의원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촌주민 복지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안·강진·진도·함평·곡성·영암군 등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6곳(27.2%)

에서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30개 시·군 가운데 18.7%에 달하는 43개 군에 달했다.

또 108개 시·군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했다.

이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의료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어촌지역 상당수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아예 없어 저출산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보성·구례·신안·함평군 등 4곳에는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한 곳도 없었다.

또 곡성·장성군에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어 병원에서의 출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8곳에 달했고 분만실이 있는 곳은 47곳이나 됐다.

또 농어촌지역 평균 병·의원 수도 29곳으로 도시지역 299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병·의원 1곳 당 인구 수도 도시지역이 1천232명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647명이나 많은 1천879명에 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단지 4,100억 투입

광주 진곡단지에 2011년 조성

광주시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소재 집적단지가 4천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곡산업단지 내 204만m²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집적단지 내에는 공동전문기술센터 및 공동그린센터가 구축되고, 각종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유치, 오는 2018년까지 연간 100만대 생산능력을 지닌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로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고효율 디젤 기술의 성과물인 클린 디젤자동차는 향후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이 집적단지가 광주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클린 디젤자동차 산업 세계 4위 달성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안은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연구원 주관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획'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분과, 기반구축분과, 경제성분과 등 각 분과별 연구결과 발표, 페널 토론 등의 순으로 열렸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여기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소재 집적단지에는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지조성에 500억원, 기반구축사업 2천200억원, 연구개발비용 1천400억원 등 모두 4천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단지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부품 및 제어기술의 해외 의존도 축소 ▲신소재 산업과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및 고용증대 효과가, 사회적으로는 ▲국내 화탄소 배출 감소 또 생산유발효과 6천694억4천만원, 부가가치유발액 3

천269억9천만원, 취업유발인원 6천344명 등의 경제적 과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단지 내에는 300억원 예산 규모의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술개발센터를 구축해 각종 신기술을 상용화는 기반으로 삼고, 핵심부품소재센터(300억원), 부품성능시험 및 공동그린센터(220억원) 등도 설립된다. 이들 센터는 동력발생전달, 하이브리

드, 성능시험 등과 관련된 219종의 신규 장비를 갖춰 단지 내 부품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클린 디젤자동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집적단지가 좁아 없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시리즈 원점으로

4차전 KIA 3대4 패

2009 한국시리즈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인천 문화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3-4로 패했다.

2승씩을 주고받으며 승자를 가리지 못한 KIA와 SK는 22일 잠실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재격돌한다.

지난 19일 선발 구토순이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6-11로 패했던 KIA는 20일 4차전에서 3개의 병

살타를 기록하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져 3-4로 주저앉았다.

안방에서 2승을 챙기며 우승 고지를 향해 질주했던 KIA는 적지에서 2연패를 당했다.

2승씩을 주고받으며 승자를 가리지 못한 KIA와 SK는 22일 잠실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재격돌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을 햇살과 함께 환경 살리고 건강 다지세요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녹색성장'의 전령으로 떠오른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1월 14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전거 인구 확대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전거를 타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새롭게 탈바꿈하는 호남의 청춘 영산강의 시원한 '용소'(龍沼)를 돌아보며 환경보전과 함께 번영을 기원하는 호남 최고의 자전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늦가을 아름다

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둔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09년 11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장소: 광주 금호페밀리랜드~담양 고서 일원~국립5·18민주묘지~금호페밀리랜드
-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 문의: (062) 220-0541
- ※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자전거 용품을, 입장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光州日報社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

우체국 주선을 받아온 11.11 학생독립운동을 기념... 그 경비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함께 해주세요.

●일 시: 2009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장 소: 광주 남부시민공원
●경 거 쓰: 경량경기(3km)
●참 가 대: 주민
●접수문의: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TEL 040-5706 FAX 062-940-3705

* 가입비 통화제한금액 1000-000-0000

●버스노선: 남부시민공원 - 광주대, 광주대, 남부대
여성대학원대학 - 광주대, 차밭대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
주제: 11.11 건강대회에서 나누는 건강한 광주 대회